

의안번호	제 56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10월 일 (제295회)

**기업형 수퍼마켓 (SSM) 입점중단
촉구 결의안**

제 안 자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연월일	2010년 10월 18일

기업형 수퍼마켓(SSM) 입점중단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56
----------	----

제안연월일 : 2010년 10월 18일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 이유

- 우리 지역에는 1997년 청주 이마트를 시작으로 대형 마트, 백화점 등 모두 13개소의 대규모 점포가 입점 운영 중에 있음.
- 대형 유통업 위주의 유통 관련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소규모 수퍼마켓과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은 상대적으로 쇠락하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골목 상권을 지켜내기 위해 삼성 테스코의 SSM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결의하고자 함.

붙임 : 결의안

- 보낼곳 : 삼성테스코(주),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일동

기업형 수퍼마켓(SSM) 입점중단 촉구 결의안

우리 충북지역에는 1997년 청주 이마트를 시작으로 대형 마트, 백화점 등 모두 13개소의 대규모 점포가 입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유통업 위주의 유통 관련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소규모 수퍼마켓과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은 상대적으로 쇠락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기업형 수퍼마켓(SSM)까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동네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중소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경제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사업일시 정지 권고도 무시한 채 SSM 출점을 강행하고 있는 삼성 테스코의 행태는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골목 상권을 지켜내기 위해 삼성 테스코의 SSM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바라는 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지난 1년간 지역사회 공헌을 골자로 하는 상생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범망을 피하고자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기습 출점을 자행하는 삼성 테스코는 이제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자제하십시오.

하나, SSM 출점 강행은 골목 상권 초토화와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부추기며 동네 상권까지 노린다는 것은 결국 기업과 국민이 함께 붕괴되는 사태라는 걸 인식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작금의 사태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되도록 대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2010년 10월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